

## 울산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

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.

1월11일 오후 10시20분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유연탄 적재 작업을 하던 박씨가 얼굴과 손에 2-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.

불은 공장 시설물을 태워 580만원(소방서 추산)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30분만에 진압됐다.

경찰은 유연탄에서 발생한 미세 분진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순간적으로 폭발하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
<화학저널 2011/01/12>